

##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 규 상\* 1)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과 대인관계성향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연구대상자는 우울경험질문지, 분리-개별화 척도, 대인관계성향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 집단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누고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분리 개별화 수준과 대인관계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독립개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공생 일차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에 있어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역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관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논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기 비난적 우울, 의존적 우울, 분리-개별화, 대인관계성향

\* 본 연구는 박규상(2008)이 작성한 석사학위논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개별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요약 및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규상, 가톨릭대학교,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38-14 102호, Tel: 02-6409-9135, E-mail: smile932@naver.com



일생을 통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우울의 경험은 복합적, 이질적(heterogenous)현상으로, 경하고 일시적인 불행감에서부터 보다 지속적이면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질병으로서의 임상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비교적 적절한 반응일 수도 있고, 심각한 현실의 왜곡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Blatt, Quinlan, Chevron, McDonald, & Zuroff, 1982).

임상가들과 정신병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울증의 원인, 과정, 증상,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울증을 구분하려고 노력해왔다. 정신병적 대 신경증적, 내인성 대 반응성, 일차적 대 이차적 등 우울증을 구분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각 하위 집단에서 발견된 상당한 이질성으로 인해 우울증 연구나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Gotlib, Lewinsohn, & Seeley, 1995).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다른 차원의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은 우울이 개인의 소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소질-스트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이 모델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인과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정신병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사람에 따라 우울 발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우울성 소질을 가진 사람이 그 자신의 성향과 관련이 있는 생활사건에 부딪치면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Blatt & Zuroff, 1992; Hammen, Ellicott, & Gitlin, 1989; Robins & Luten, 1991; Rude & Burnham, 1993; Segal, Shaw, Vella, & Katz, 1992). 우울에 취약한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울 취약성은 의존적 우울취약성과 자기 비난적 우울 취약성으로 분류하며 그 중 의존적 우울 취약성은 비주장성, 헌신성, 간섭성 및 피착취성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반면, 자기 비난적 우울 취약성은 지배성, 경쟁성, 냉담성, 회피성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의존적인 집단과 자기 비난적

인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김은정, 권정혜, 1998; 오현주, 1997; 윤현수, 2000).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대인관계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우울취약성에 따른 대인관계양상을 예언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Mahler(1975)는 영아가 생후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독특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이를 영아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생의 초기 3년 동안 유아와 어머니 간의 분리 경험을 '심리적 탄생(psychological birth)'이라고 명명하면서 일차적 개별화를 통해 물리적인 독립성을 인식하게 되고 어머니의 존재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Blos(1979)도 역시 정신 역동적 관점에서, 자아의 적응체계 형성을 청년기 발달의 주요지표로 간주하여, 청년기 발달을 이차적 개별화 과정(secondary individuation process)으로 설명하였다. 이차 개별화는 청년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 가는 과정으로, 유아기 때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청년기 동안 부모에 대한 의존 관계를 거부하고 부모의 내재화된 영향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어, 스스로 신체 및 성적 변화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된 자아의 적응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Mahler(1975)는 의존적 우울의 대상관계를 미분화되어 공생적인 특징을 갖는 분리-개별화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고 자기 비난적 우울은 의존적 우울보다 더 높은 자아 발달 수준에 해당하며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대상관계는 분리와 독립이라는 좀 더 후기의 발달 단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의존적 우울의 경우 공생단계에 머물러 타인과의 보살핌과 관계 욕구, 사랑과 인정욕구가 강한 반면, 자기 비난적 우울의 경우 보다 발달된 발달 단계에 있어 독립, 성취 욕구 등이 강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

울에 따라 분리-개별화 수준이 어떤 양상을 띠며 대인관계성향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이 부모와 자녀사이의 애착형성, 안정적인 애착의 유지와 함께 자율성 획득, 부모와의 정서적 분리 등이다(Bloom, 1980). 청소년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유지와 분리과정은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발달과제로서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적 적응 행동에 핵심역할을 하여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지적되고 있다(Blos, 1979; Havighurst, 1972). 즉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를 이루고 자기 개념의 분화로 건강한 자기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우울취약성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 고등학생들이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다. 청소년 시기는 동년배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Coleman, 1978)로 타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많다. 한 예로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고민과 걱정거리를 상담하는 대상으로 친구가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머니 12.3%, 형제자매 9.4%, 아버지 3.3% 순으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은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발달과업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러 정서적 문제와 과업에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 취약성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청소년들의 분리-개별화 수준과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아 일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겪는 청소년상담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가설

가설 1. 우울 취약성의 하위 집단에 따라 상이한 분리-개별화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1-1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분리개별화 수준 중 假 독립 개별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분리개별화 수준 중 공생 일차적 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분리개별화 수준의 하위요인에 있어 우울 취약성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우울 취약성의 하위 집단에 따라 상이한 대인관계성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1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대인관계 성향 중 역살성향과 표현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대인관계성향 중 사회적 관계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대인관계성향의 하위 요인에 있어 우울 취약성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학생 중 3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설문지를 부실기재한 응답자를 제외한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96명, 여학생이 120명이었으며 학년별로 보면 중학생이 54명 고등학생이 162명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적사항

	남	여	합계/백분율(%)
중학교	21	33	54/25
인문계고등학교	38	60	98/45.4
실업계고등학교	37	27	64/29.6
합계/백분율(%)	96/44.4	120/55.6	216/100

측정도구

**우울경험질문지(DEQ)**

Blatt(1976)등은 임상적 문헌을 통해서 우울의 증상이 아닌 주관적 경험, 즉, 우울감과 빈번히 관련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150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를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66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Blatt등(1976)은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제1요인은 “의존성”, 제 2요인은 “자기비난성”, 제3요인은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효능감을 제외한 두 요인은 Blatt(1974)의 정신분석적 이론을 토대로 구분한 의존적 우울과 자기 비난적 우울을 적절하게 설명한다(김순진, 1988). 또한 우울 경험의 두 요인인 의존성과 자기비난성은 정상인의 기본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며, 특정유형의 성격구조를 의미하기도 하므로(Zuroff, Moskowitz, Wielhus, Power, & Franko, 1983) 임상적 우울 집단이 아닌 정상인의 우울 경험 혹은 성격 유형을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Blatt등(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 질문지를 조재임(1996)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한 것을 토대로 김현진(2002)이 요인 분석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요인 중 제 3요인인 ‘효능감’은 중점적으로 보고자하는 요인이 아니므로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자기 비난성이 .87, 의존성이 .84, 효능감이 .61이었으며 전체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분리-개별화 척도(SITA)**

분리-개별화척도는 Levine, Green과 Millon(1986)이 제작한 청소년용 분리개별화 척도(Separation -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 SITA)를 장근영과 윤진(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8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함입불안, 자기몰입, 분리불안, 건강한 독립, 거부에 대한 기대, 의존부정, 공생관계, 친구와의 결속 등이다. 이 중에서 건강한 독립, 의존부정, 자기몰입, 거부기대, 친구와의 결속은 크게 독립 개별화(Individuation-Pseudo independent)와 관련된 요인1로, 분리불안, 결속불안, 공생관계는 공생관계-일차적 불안(Symbiosis -Primary Anxiety)과 관련된 요인2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 척도의 하위 요인을 구분한 공생관계-일차적 불안과 독립 개별화의 두 요인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장근영과 윤진(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3이고 김인경(1993)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대인관계성향척도**

본 연구에서는 안범희(1985)가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라는 논문에서 제작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 성향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지는 각 차원별로 12개 문항씩 총 84문항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역할성향은 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성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관계성향은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성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현성향은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성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성향의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위요인을 역할성향, 사회적 관계성향, 표현성향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 자료수집

서울과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생 399명에게 우울 경험 질문지(DEQ) 분리 개별화(SITA), 대인관계성향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232문항(중복문항3문항포함)이었으며 설문 응답시간은 약 45분정도 소요되었다. 허위 작성되는 것을 막고자 각 척도별로 한 문항씩 중복 문항을 넣었으며 신뢰로운 결과를 위해 원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결과를 알려준다는 표기를 하였다.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집단을 상위, 하위 각각 50%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의존적 우울 집단 역시 상위, 하위 각각 50%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종속변인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자료 분석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집단과 의존적 우울집단을 상위, 하위 각각 50%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자료 통계 절차는 SPSS 13.0을 사용했으며 활용된 통계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취약성 척도와 대인관계성향척도, 분리-개별화 척도의 내적 일치도 검사를 위하여 216명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과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술 통계학적 특성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 상, 하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울취약성과 분리개별화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을 보면 자기비난과 의존성은  $r=.532(p<.01)$ 수준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의존적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자기비난과 공생 일차적 불안은  $r=.521(p<.05)$ 수준으로 가 독립 개별화는  $r=.330(p<.05)$ 수준으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공생 일차적 불안과 가 독립 개별화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의존성과 공생 일차적 불안은  $r=.592(p<.01)$ 수준으로 가 독립 개별화는  $r=.140(p<.05)$ 수준으로 각각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공생 일차적 불안과 가 독립 개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성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16

변인	하위요인	M	SD
우울취약성	자기 비난적 우울	88.91	18.12
	의존적 우울	105.68	16.66
	효능감	38.82	6.60
분리-개별화	공생관계-일차적불안	77.6	11.63
	가독립 개별화	140.6	15.17
대인관계성향	역할성향	69.1	8.73
	사회관계성향	78.6	10.40
	표현성향	106.1	14.23

표 3.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상, 하 집단의 평균

변인	M	SD
자기 비난적 우울 상 집단	102.94,	11.072
자기 비난적 우울 하 집단	74.09,	10.819
의존적 우울 상 집단	96.98,	16.345
의존적 우울 하 집단	81.28,	16.372

표 4. 우울취약성과 분리 개별화의 상관관계

	자기비난	의존성	공생 일차적 불안	가 독립 개별화
자기비난	1			
의존성	.532**	1		
공생 일차적 불안	.521*	.592*	1	
가 독립 개별화	.330*	.140*	.396*	1

\* $p < .05$ , \*\* $p < .01$

표 5.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성향의 상관관계

	자기비난	의존성	역할성향	사회적관계성향	표현성향
자기비난	1				
의존성	.532**	1			
역할성향	.148*	.072	1		
사회적관계성향	-.202*	.143*	.250*	1	
표현성향	.348*	.208*	.612*	.132	1

\* $p < .05$ , \*\* $p < .01$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비난과 역할성향은  $r=.148(p<.05)$  수준으로 표현성향은  $r=.348(p<.05)$  수준으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역할성향과 표현성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 의존성과 사회적 관계성향은

$r=.143(p<.05)$  수준으로 표현성향은  $r=.208(p<.05)$  수준으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성향과 표현성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의 차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대한 분리-개별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 집단을 상위 50%, 하위 50%로 구분하여 각 조건에 따른 분리-개별화 수준 중 공생 일차적 불안의 통계치와 이원변량 분석결과를 표 6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 비난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216)=24.143, p<.01$ ).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공생 일차적 불안의 차이가 있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82.37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72.50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216)=32.552, P<.01$ ). 즉 의존적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공생 일차적 불안의 차이가 있었다. 의존적 우울

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83.08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72.36으로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반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216)=.993, p>.05$ ). 즉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의 주 효과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가 독립 개별화의 통계치와 이원변량 분석의 결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 비난적 우울에 따른 가 독립 개별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216)=11.264, p<.01$ ).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가 독립 개별화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144.67이고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가 독립 개별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표 6.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의 통계치

		자기 비난적 우울				합계	N
		상위집단	N	하위집단	N		
의존성	상위집단	85.66 (9.334)	73	77.19 (8.782)	32	83.08 (9.932)	105
	하위집단	76.05 (11.630)	38	70.44 (9.743)	73	72.36 (10.713)	111
	합계	82.37 (11.112)	111	72.50 (9.922)	105	77.57 (11.630)	216

( )는 표준편차임

표 7.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의 이원변량 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유의확률
자기비난(A)	2334.754	1	2334.754	24.143	.000
의존집단(B)	3147.896	1	3147.896	32.552	.000
A×B	95.987	1	95.987	.993	.320
오차	20501.181	212	95.704		
합계	1328757	216			



표 8.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가 독립 개별화의 통계치

	상위집단		자기 비난적 우울		하위집단		합계	
	상위집단	N	상위집단	N	하위집단	N	합계	N
의존성	상위집단	73	144.62 (15.971)	32	139.16 (13.301)	105	142.95 (15.353)	105
	하위집단	38	144.76 (16.672)	73	135.82 (12.807)	111	138.88 (14.800)	111
	합계	111	144.67 (16.139)	105	136.84 (12.987)	216	140.86 (15.173)	216

( )는 표준편차임

표 9.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가독립개별화 이원변량 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유의확률
자기비난(A)	2441.075	1	2441.075	11.264	.001
의존집단(B)	119.592	1	119.592	.552	.458
A*B	142.623	1	142.623	.658	.418
오차	45943.032	212	216.712		
합계	4335334	216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을 각 상위 50%, 하위 50%로 구분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중 역할성향의 통계치와 이원변량분석에 대한 결과를 표10과 표11에 제시하였다.

표 11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 비난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216)=6.014, p<.05$ ).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사회적 관계성향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77.43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79.91로 자기 비난적 우울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216)=4.585, p<.05$ ). 즉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사회적 관계성향에 차이가 있었다. 의존적 우

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79.59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77.74로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반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216)=1.069, P>.05$ ). 즉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주효과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표현성향의 통계치와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를 표 12과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 비난적 우울에 따른 역할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216), P<.01$ ).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표현성향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109.67이고 낮은 집단의 평균은 102.28로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역할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표 10.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의 통계치

		자기 비난적 우울				합계	N
		상위집단	N	하위집단	N		
의존성	상위집단	78.00 (10.474)	73	83.22 (9.227)	32	79.59 (10.351)	105
	하위집단	76.34 (10.057)	38	78.47 (10.600)	73	77.74 (10.419)	111
	합계	77.43 (10.317)	111	79.91 (10.391)	105	78.64 (10.403)	216

( )는 표준편차임

표 11.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의 이원변량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유의확률
자기비난(A)	634.521	1	634.521	6.014	.015
의존집단(B)	483.734	1	483.734	4.585	.033
A*B	112.751	1	112.751	1.069	.302
오차	22366.186	212	105.501		
합계	1359030	216			

표 12.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표현성향의 통계치

		자기 비난적 우울				합계	N
		상위집단	N	하위집단	N		
의존성	상위집단	110.26 (14.78)	73	104.88 (14.520)	32	108.62 (14.838)	105
	하위집단	108.53 (14.01)	38	101.14 (12.101)	73	103.67 (13.255)	111
	합계	109.67 (14.477)	111	102.276 (12.989)	105	106.07 (14.232)	216

( )는 표준편차임

표 13.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표현성향의 이원변량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유의확률
자기비난(A)	1920.723	1	1920.723	10.125	.002
의존집단(B)	352.418	1	352.418	1.585	.174
A*B	47.270	1	47.270	.249	.618
오차	40215.659	212	189.697		
합계	2473918	216			

## 결론 및 논의

먼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공생 일차적 불안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수준

을 보여주었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 수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 수준을 보여 주었다. 즉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공생 일차적 불안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는 Mahler의 분리 개별화 수준에서 의존적 우울이 공생관계에 머무른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 비난적 우울의 상 하 집단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부형(2000)의 연구에서 공생 관계수준에서 복합적 우울 집단이 높게 나타난 것보다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먼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두 독립변인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또 자기 비난적 우울과 공생 일차적 불안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 내의 우울 성향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los(1962)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두 번째 개별화 과정의 주요 성취인 정체감 혹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부모와의 독립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공생과 개별화과정의 혼란과 불안을 겪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가 독립 개별화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가 독립 개별화 수준을 보여 주었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가 독립 개별화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는 Mahler(1968)의 연구에서 자기 비난적 우울성향이 있는 이들의 대상관계가 분리와 독립이라는 후기의 발달단계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 비난적 우울에서는 자기 비난, 죄책감, 실패감이 주요 테마가 되며 이들은 실제적인 대상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이 제공하는 사랑이나 수용 그리고 인정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이다(Blatt, 1974). 그리하여 이들은 과도한 성취욕구나 완벽주의적인 사랑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Blatt, 1974).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생활환경이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우울증상을 보여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생활태도나 학교생활유형 등을 통해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생활이나 주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지나친 성취 욕구를 보이거나 완벽주의적 경향 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면을 보이는 것 등에서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자하는 자기 비난적 우울취약성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공생 일차적 불안에서의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상호작용효과와 가 독립 개별화에서의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은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각각의 변인의 높고 낮음이 공생 일차적 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의존적 우울은 가 독립 개별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가 독립 개별화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고 의존적 우울이 낮은 집단과 의존적 우울이 높고 자기 비난적 우울이 낮은 집단의 수가 적고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간의 상관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사회적 관계성향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였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상이한 연구결과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은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간의 상관이 높을 것과 연관이 있으며 또한 또래 집단의 친밀감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 즉 청소년기의 중요과제가 대인관계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의존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였다. 즉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관계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Cote Moskowitz(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의존적 우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순응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또

Priel과 Shahr(2000)는 의존적인 사람은 사회적 지지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적인 사회적 맥락을 유지하도록 애쓴다고 보고하였다. 오현주(1997) 역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라 상이한 대인관계문제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연구한 결과, 의존적 우울집단의 경우 대인관계에 집착하면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간섭이 심한 특성을 가지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적절한 자기 노출을 하는 특징을 보이는 간섭성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표현 성향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표현성향을 보였다. 즉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높은 표현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윤현수(2000)는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자기 비난적 우울)은 지배성, 경쟁성, 냉담성, 회피성의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오현주(1997)의 연구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경직되거나 오만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거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면, 대인관계성향에 있어서의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성향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성향이 높았고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높고 낮음이 사회적 관계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표현성향에서는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의존적 우울은 표현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자기 비난적 우울이 높을수록 표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으나 청소년기에 우울성향이 어느 한 방향과 관계없이 공생 일차적 불안의 수준과 사

회적관계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울삽화(무기력, 나태함, 느린 행동,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것 외에 공격성, 대인관계 문제, 회피 등의 행동 특성과 함께 지나친 성취 욕구나 관계지향 욕구 완벽주의적인 경향과 같은 태도와 관련된 것 역시 우울취약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이 복합적이며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심리적으로 공생 불안과 갈등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감이나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하여 비교 연구해 본다면 청소년기를 겪는 이들의 세분화된 심리적 상태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리 개별화라는 발달 과업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동안 공생단계와 개별화 단계를 거쳐 이를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달성되며 비로소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Mahler, Fine & Bergman, 1975). 따라서 앞으로의 우울취약성과 분리 개별화 연구는 중, 고, 대학생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명금 (2005).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 및 청소년 분리-개별화와 자존감간의상관관계 -선교사 자녀, 기독교 청소년, 일반청소년 비교분석-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민정 (2005). 초, 중등생의 심리사회적 발달수준 및 분리개별화 과정에 따른 발달의 분기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진 (1998). 성취 및 대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비판형 - 의존형 우울취약성이 우울 정서에

- 미치는 차별적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권정혜(1998). 우울 증상과 관련된 대인 관계 특성 : 성인기 애착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7, 139-153.
- 김은정 권정혜(1998). 우울 증상과 대인관계 취약성 : 사회성 및 자율성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155-169.
- 김인경 (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96-119.
- 김현진 (2002).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명정완 (2001). 청소년의 문화성향에 따른 자의식 및 우울경험취약성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부형 (2000).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분리 -개별화 수준 및 대상관계 특징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주 (2005). 애착의 회피-불안 차원에 따른 우울 양식과 대인관계문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원모 (2003). 중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애 (2000). 중학생의 열등감 정도와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보영 (2003). 자기 비판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패턴 : CCRT방법을 통한 질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 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현주 (1997). 자기 비판적 우울 취약성과 의존적 우울 취약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염정애 (2006). 중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지로성숙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연 (200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성향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수 (2000).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의 특성 :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은정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우울취약성, 대인관계성향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서영 (2004).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수준과 성역할 정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박세현, 이해경, 정효경, 황을지, 허시영 (2002). 대인관계치료, 서울 학지사.
- 이윤조 (2007).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스트레스지각, 대처방식 및 우울취약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연 (200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간의 상관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6). 우울 취약성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대인관계 양상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 (2007). 완벽주의성향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우울취약성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근영, 윤진(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5(1), 157-175.
- 조재임 (1996). 우울의 두 차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민정 (2007). 인지적 대인관계문제해결기술훈련이 우울한 아동의 우울수준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한국청소년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rieti, S. & Bemporad, J. R. (1980). The psychological organiza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60-1365.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265-290. New York : Raven.
- Blaney, P. H., & Kutcher, G. S. (1991). Measures of depression dimensions : Are they interchangeab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 502-512.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4, 107-157.
- Blatt, S. J. (1991). A cognitive morphology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449-458.
- Blatt, S. J., Brenneis, G. B., & Schimelo J. G. (1976). The norm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ical impairment of the concept of the object on the Rorscha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64-373.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Depressive experience questionnair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838-839.
- Blatt, S. J., Shichman, S. (1983). Two primary configurations of psychopathology.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6, 187-254.
- Blatt, S. J. Quinlan, D., Chevron, E., McDonald, D., & Zuroff, D (1982)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 Psychological dimensions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50, 113-124.
- Blatt, S. J., & Zuoff, D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 Bloom, M. V. (1980). *Adolescent 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arden Press.
- Blos, P. (1962). *On adolescence*. N. Y. : The Free Press.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In the adolescent passag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 Bowlby, J. (1980). Development psycholog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10.
- Coleman, J. C. (1978). Current Contradiction in Adolescent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1-11, 256-282.
- Cote, S., & Maskowitz, D. S. (1998). On the dynamic covariation between interpersonal behavior and affect : Prediction from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agreeabl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32-1046.
- Franché, R., & Dobson, K. (1992). Self-Criticism and Interpersonal Dependency as Vulnerability Factors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16, 4, 419-435.
- Gotlib, L. H. (1992). interpersonal and cognitive aspects of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 Psychological science, 1, 149-154.
- Gotlib, I. H., Lewinsohn, P. M., & Seeley, J. R. (1995). Symptoms versus a diagnosis of depression :Differences in psycho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90-100.
-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mmen, C., Ellicot, A., Gitlin, M., & Jamison, K. R. (1989). Sociotropy/Autonomy and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54-160.
- Havighurst, R.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Y :Longmans, Green.
- Klein, D. N., Harding, K., Taylor, E. B. & Dickstein, S. (1988).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in depression : Evaluation in a 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99-404.
-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 Lenine, J. B., Green, C. J., Millon, T. (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1)*, 123-137.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 New York Basic Books.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9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 Basic Books.
- Mongrain, M. (1998). .representations and support-seeking behaviors related to dependency and self- criticism. *Journal of Personality, 66*, 151-173.
- Powers, T. & Zuroff, D. C. (1988).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overt self-criticism :A Comparison With Neutral and Self-Enhance Presentations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54-1062.
- Preil, B. & Shahar, G. (2000). Dependency, Self-criticism, social context and distress comparing moderation and mediating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515-525.
- Robins, C. J., & Luten, A. G. (1991). Sociotropy and autonomy differential patterns of clinical presentation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74-77.
- Rude, S. S. ,& Burnham, B. L. (1993). Do interpersonal and achievement vulnerabilities interact with congruent events to predict depression? Comparison of DEQ, SAS, DAS, and combined scal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6)*, 531-548.
- Segal, Z. V., Shaw, B. F., Vella, D. D., & Katz, R. (1992). Cognitive and life stress predictors of relapse in remitted unipolar depressed patients : Test of the congruenc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26-36.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arton.
- Welkowitz, J, Lish, J. D., & Bond, R. N. (1985).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Revis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89-94.
- Zuroff, D. C., Ingreja, L., & Mongrain, M. (1990). Dysfunctional attitudes,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depressive mood states : A 12 month longitudinal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315-326.

Zuroff, D. C., Moskowitz, D. S., Powers, T. A., & Franko, D. L.(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dependency and self- criticism scale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7, 226-241.

Zuroff, D. C., & Pincus, N. (1997). *Self-criticism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couple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Adolescent's Self-Critical and Dependent Depression

Park Gyu Sang      Seong 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and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self-critical depression vulnerability group and dependent depression vulnerability group. To explore these hypothesis, DEQ, SITA,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st were administered to 21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were divided into two sub group according to its lever(high/low 50%). And 2×2 ANOVA was conducted on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as a independent,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and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a depend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According of Individuation-Pseudo level, high group of self-critical depression was higher than low group. According of Symbiosis-Primary Anxiety level, high group of dependent depression was higher than low group. But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had not interaction effect on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According of the propensity of role,, high group of self-critical depression was higher than low group. According to the propensity of social relationship,, high group of dependent depression was higher than low group. But Self-critical depression and dependent depression had not interaction effect of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Lastly, the discussion follows about meaning fo this research and limitations

*Key words : Self-critical depression, Dependent depression Separation -individuation, The propens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